



신한금융, 자원봉사대축제 기념 봉사활동 실시

신한금융그룹은 15일 오전 서울 중구에 위치한 신한금융 본사에서 조용병 신한그룹 회장 및 그룹사 CEO, 임원들이 '2022 Global One Shinhan(글로벌 원 신한) 자원봉사대축제'의 시작을 기념하는 봉사활동을 실시했다고 밝혔다. 신한금융그룹 조용병 회장(왼쪽)과 독거노인종합지원센터 김현미 센터장이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신한금융



SK이노베이션, 릴레이 헌혈캠페인 동참

SK이노베이션은 '세계 헌혈자의 날'을 맞아 'SK 릴레이 헌혈 캠페인'에 동참했다. 지난 14일 SK이노베이션은 혈액부족난 해소에 기여하고자 '사회안전망(Safety Net)' 구축을 위해 참여했다. 이날 행사에는 SK이노베이션 계열 구성원 외에도 SK E&S 등 SK그룹 관계사 구성원 총 100여명이 함께했다. SK이노베이션 직원이 'SK 릴레이 헌혈 캠페인'에 참여하고 있다. /SK이노베이션



김용문 창업진흥원장, 재도전 창업기업 격려 나서

김용문 창업진흥원장이 재도전 창업기업들의 애로사항을 청취하고 격려하기 위해 15일 대전에 있는 재도전성공패키지 교육형 주관기관 랩츠를 방문해 올해 처음으로 운영하는 재도전 힐링캠프 참여 재도전 창업기업들과 간담회를 가졌다. 김용문 창업진흥원장(앞줄 왼쪽 5번째)이 재도전 창업기업 관계자들과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창진원



HMM-목포해양대, 미래해양 인재육성 맞손

HMM이 미래해양인재 육성에 박차를 가할 계획이다. HMM은 이를 위해 해양산업과 학교 발전에 기여하고자 목포해양대학교와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이번 업무협약으로 HMM은 목포해대와 상호 교류를 통한 상생발전을 도모하고, 해양산업과 학교발전에 앞장서기로 했다. (왼쪽부터)한원희 목포해양대학교 총장과 김경배 HMM 대표이사가 서명식을 마친 후 기념 촬영을 하고 있다. /HMM

인사

- ◆ 소셀밸류 △산업부장 이호영
- ◆ 한국건설기술연구원(KICT) △대외협력정보실장 오상목 △연구관리실장 김병길 △안동행정팀장 나무영

부음

- ◆ 정철화(경북매일신문 편집국장)씨 모친상, 15일 오전 3시, 서울현대요양병원 장례식장 특1호실, 발인 17일 오전 7시. ☎ 010-3543-2299

삼성, SW인재 육성 결실... SSAFY 75% '취업성공'

〈청년SW아카데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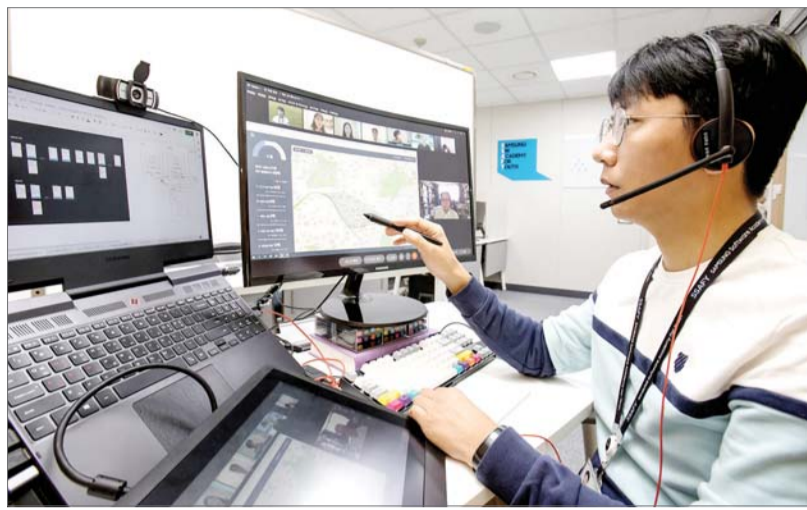
청년SW아카데미 6기 수료식
누적 3678명 배출 2770명 취업

삼성이 청년 소프트웨어 전문가가 벌써 6기까지 배출했다. 3000명 가까운 인재들이 새로운 삶을 찾게 됐다.

삼성은 15일 서울 강남구 '삼성청년SW아카데미(SSAFY)' 서울캠퍼스에서 6기 수료식을 열었다.

SSAFY는 2018년 '경제활성화와 일자리 창출방안' 일환으로 시작한 사회 공헌 프로그램으로, 고용노동부와 함께 취업을 준비하는 청년을 돕고 있다.

수료식은 온오프라인으로 진행됐으며, 삼성전자 박학규 사장뿐 아니라 고용노동부 권기섭 차관과 국민의



SSAFY 수업 모습

/삼성

힘 유주경 의원, 더불어민주당 김영배 의원 등이 참가해 축하와 응원 메시지를 보냈다. 김투스 송재준 대표와 쏘카 유석문 CTO도 영상을 통해

SSAFY에 대한 신뢰를 표현했다.

SSAFY는 6기까지 3678명 수료생을 배출했고, 이중 75%인 2770명을 취업시키며 높은 성과를 거뒀다.

수료생 중 35%인 965명이 소프트웨어 비전공자라 의미를 더했다.

수료생들이 취업한 기업도 삼성 전자뿐 아니라 카카오와 네이버 등 인기 IT 업체, KB 국민은행과 신한은행 등 금융권 등 다양했다. 120여개 기업이 SSAFY 수료생 채용 우대 정책도 펼치고 있다.

SSAFY 동문회도 결성됐다. 소규모로 운영되던 수료생 커뮤니티가 지난 9일 서울캠퍼스에서 동문회로 발대식을 열며 새로 출범한 것. 수료생들은 이를 통해 폭넓은 교류를 이어가며 역량을 키우고 커리어를 발전시킬 예정이다. 멘토 활동을 통해 노하우 전수도 이어질 것으로 기대된다.

/김재용 기자 juk@metroseoul.co.kr

KT, 대학생 인재 발굴 'AI해커톤' 성공적 마무리

180개 팀 중 6개 본선 심사
'AI알고리즘' 안종찬팀 대상

KT가 한국전자통신연구원(ETRI)과 14일 공동 개최한 '제1회 네트워크 지능화를 위한 인공지능(AI)해커톤' 행사를 성공적으로 마무리했다고 15일 밝혔다.

이번 행사는 네트워크 AI 분야에서 국내 대학(원)생 인재를 발굴하고, 산업체와 학계, 연구소가 관련 기술을 교류할 수 있는 자리를 만들기 위하여 올해 처음 개최됐다.

지난 4월 온라인 예선에 참가해 과제를 제출한 180개 팀 중 상위 6개 팀이 서울 서초구 KT 우면연구센터에서 본선 심사를 받았다. KT의 IP 네트워크 및 미디어 서버의 과거 운용 데이터에서 네트워크 이상을 탐지하는 과제에 대한 심사가 진행됐다.



KT 융합기술원 인프라DX연구소 이종필 상무가 행사를 소개하는 모습. /KT

적화된 AI 알고리즘을 개발한 '안종찬팀(단국대·숭실대·동국대)'이 차지했다. 최우수상은 '장종환팀(경북대)'과 'KAUST팀(KAIST·UST)'이, 우수상은 'DA팀(부산대)'과 'S PS레인지팀(고려대·연세대)', '코드바사삭팀(GIST)'이 수상했다.

양사는 6개 수상팀에 총 1000만 원의 상금을 수여하고 KT 채용 우대 혜택을 제공하기로 했다. 대상팀은 오는 22일 제주도에서 열리는 한국통신학회 학계학술대회에도 참석하는 기회를 얻었다.

이날 본선 심사와 함께 네트워크 지능화 기술 연구 동향과 활용 사례 발표 세미나, 국내 AI 스타트업의 홍보부스 전시 등 네트워크 AI 산·학·연이 모두 참여하는 기술 교류도 이뤄졌다.

/채윤정 기자 echo@

LG유플러스 'U+AD' 초개인화 타겟팅 주력 통합광고플랫폼 런칭

LG유플러스는 TV와 모바일 광고상품을 통합 운영하는 통합 광고 플랫폼의 브랜드 'U+AD'를 통해 초개인화 타겟팅 광고 시장에 뛰어든다.

'U+AD'는 광고사업의 DX(디지털 전환) 기반을 마련하기 위해 구축한 광고 운영 플랫폼으로, TV·모바일 등 다양한 매체의 광고 상품을 청약부터 운영, 결과 리포트까지 통합적으로 관리할 수 있다.

LG유플러스는 지난해부터 자사 IPTV(U+tv)와 자회사 LG헬로비전 케이블TV(헬로tv)를 시칭하는 전국 940만 가구는 물론, 모바일(U+골프, U+프로야구, U+아이돌Live 등) 서비스를 이용하는 1500만 고객에게 맞춤형 광고를 제공하고 있다.

/채윤정 기자

아미 어찌나... 방탄소년단, 단체활동 잠정 중단

유튜브 '방탄티비'서 밝혀
개인 앨범작업 등 솔로활동

그룹 방탄소년단(BTS)이 데뷔 9년만에 단체 활동 잠정 중단을 선언했다.

방탄소년단이 최전성기를 누리고 있는 상황에서 이번 활동 중단 선언은 세계 가요계와 대중문화 분야에 큰 파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

방탄소년단은 지난 14일 방탄소년단 유튜브채널 '방탄티비(BANGTANTV)' 채널 '썸 방탄회식'에서 그룹 활동을 중단하고 개인 앨범 작업에 들어간다고 밝혔다. 영상에서 방탄소년단 멤버는 그동안 그룹 활동을 하면서 겪었던 고민과 방탄소년단의 방향성에 대해 털어냈다.

먼저 리더 RM은 "방탄소년단 없으면 무엇으로 살까 고민도 했지만 함께 해서 좋았다. 하지만 음악을 시작한 것은 세상에 어떤 메시지를 전하고 싶었다. 하지만 첫 앨범이 나오



방탄소년단

고 또 다른 앨범이 나오면서 팀이 무엇인가가 달라졌다"라고 말했다. "ON", 'Dynamite'까지는 우리 팀이 손 위에 있었던 느낌인데 그 뒤에 나온 앨범부터는 우리가 어떤 팀인지 잘 모르겠다"라고 밝혔다.

또 "10년간 음악활동을 하면서도 10년 전이랑 많이 달라진 모습인데 아이돌이라는 시스템이 스케줄에 따라 움직이다 보니 내가 성장할 시간이 없는 것 같다"라고 말하면서 "생각할 틈을 주지 않았다. 내가 어떤 사람이고 방탄소년단이 어떤 팀이고 앞으로 어떻게 나아가야 할지

언젠가부터는 모르겠다"라고 토로했다.

멤버 각자마다의 진솔한 이야기를 나누는 방탄소년단은 본격적인 솔로 활동에 나선다.

방탄소년단 멤버들의 단체 활동 잠정 중단은 멤버들의 군입대도 염두에 둔 것으로 보인다. 진이 올해 안에 입대를 해야 한다. 방탄소년단은 단체 위주 활동에 기초를 맞춰온 만큼 이번 변화를 기점으로 이들의 향후 행보와 변화에 관심이 쏠릴 수밖에 없다.

/최규춘 기자 ch9720@

KT-티빙, 제휴 추진 사전알림신청 이벤트

KT가 국내 대표 OTT 서비스인 티빙과 제휴를 추진한다. KT는 이를 기념해 '사전 알림 신청' 이벤트를 준비했다고 15일 밝혔다.

이 이벤트는 KT 홈페이지 또는 마이케이티 앱(App.)에서 KT와 티빙의 새로운 서비스 출시 알림을 신청하는 고객에게 추첨을 통해 '티빙 VIP 키트(스탠다드 3개월 이용권+무드등+인센스+전용 음료잔+태블릿/스마트폰 거치대)', '서울체크인 텀블러'나 텀블러백을 선물한다.

사전 알림 신청은 15일부터 30일까지 가능하며, KT의 무선 서비스를 이용하는 고객이면 누구나 참여할 수 있다. 이벤트를 카카오톡으로 친구에게 공유하는 참가자는 당첨 확률이 더욱 올라간다.

/채윤정 기자